



福音新聞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二九局 291511番
編集人 吳 允 台
發行人

基督敎의 世界的連繫

三大世界會議續々開幕

은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라 하신 복음의 모든 교파 간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말씀은 거금 약 一세기 동안에 일부의 지역 민족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파되었으며 다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세계의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한층 더 한층 더 그리스도의 사업을 수행할 단계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같은 계통 같은 교파 간의 연결과 협동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규모의 회의가 속속 개최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

의 모든 교파 간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는 세계적인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 전자로 지난 7월 27일로 31일까지 장로교회 세계대회가 미국 푸르티스톤에서 개최되었으며 후자로 본지상에서도 이미 여러 번 보도한 바와 같이 WCO (世界敎會會議) 제2회 세계 대회가 IMO (世界宣敎會議) 또는 COIA (基督敎國際事情委員會) 등의

社說

에 반스톤會議에 期待함

一九四八年 암스 바라는 자이다. 이 회의의 주위에는 여러 가지 말성이 일어난 바 아니었다, 그것들을 무릅쓰고 드디어 역사적인 개

이 WCO의 참가자 중 용공 주의자가 있다고 하여 그들의 미국 입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일부 상

이 회의는 一九四八年 암스톤에서 열린 이래 제2회 세계교회협의회 (世界敎會會議) WCO-1가 이 달 15일 미국 에반스톤에서 열리었다

구령명이 된 오늘날의 세계에서 「희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회의를 통하여 경연하는 하나의 역사 (役事)의 위대함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는 바이며, 이 회의를 통하여 크나큰 거동이 온 세계의 그리스도 교회에 미치기를

이제 우리는 이 회의의 개최를 축하하면서 다음의 몇가지 동회의에 대한 기대를 피력하기를 주저하지

「容共的決議時는 退場도覺悟」

金顯晶韓長代表談

이교인의 연명도 있어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전세계적으로 퍼졌고 한국에서도 말성이 있었는데, 이번 미

아니하는 바이다. 첫째로, 우리(제일 대한 기독교회는 그 설립과 조직의 입장이 그러한 것과 같이 이 회의의 근원정신과 노력에 대하여 찬성과 기대를 아울러 갖는 자이다. 이번 회의의 통하여 그 근본적인 목적의 일보 전진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신학적인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그 주제「세계의 희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도 신학적인 입지를 보기 어려워 법제 회의 개최 전에 논의되어 온 바이다. 곧 종말론(終末論)적인 해석에 대하여 많은 대립적인 의견이 있어 온 것이었다.

견이 있어 온 것이었다. 하물며 여섯가지 토의문제에 있어서는 입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일치점의 발견과 불일치점의 조정」이라는 어려운 운동이 신학적인 진전으로써 일보 전진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둘째로 이 회의만은 두 진영으로 분열되지 않아야 하겠다. 이 회의가 두 세계로 분열되어 있는 세계를 하나 되게 할 일부를 갖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자유유가나, 협의의 장막 안에서 참가자라고 하여, 반공 또는 용공 주의자라고 하여 서로 장벽을 만들고, 율타리 너머로

국공무성에서는 그들의 입국을 허가하여 오해를 일으켰으나, 동회의에 한국 장로회 대표로 참가하는 김현정 목사는 오해를 일으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공산주의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하나

로서 오늘날 우리 나라의 그리스도 교회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세계를 반용공적인 어떠한 제안이나 결의에는 철저적으로 논박을 하였으며, 그러한 제안이 철회되지 않을 때는 퇴장할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제2회 세계교회대회(WCO)는 드디어 지난 15일 미국 시카고의 코넬 대학교에서 개막되었다. 이 회의는 1948년 암스톤에서 열린 이래 제2회의 대회인데 전 세계의 푸르티스톤 교회 성도들이 참가하였다.

공회 불교 정교회와 백대 십자가 교회의 정교회 대표 약 1,000여명, 루터교회 약 1,000여명, 개신교 약 2,000여명, 그리고 다른 교파에서 온 성도들이 총 18개국에서 열렸다.

8월 15일은 바로 주일이었으므로 주일 예배로써

一六一 敎派代表一堂에 世界敎會會議歷史的開幕

이 회의가 개막된 첫인대, 이 회의에는 제일 장로교회 목사 하워드·보스워스와 사회에 의하여 거행되었는데, 순서 중에는, 특히 「내 주는 강한 성의 성채」 성경 이사야서 53장, 빌립보서 2장 11-12절의 낭독, 사도신경 및 주제의 의의 등을 포함한 제식으로 부로써, 목회자 박사에 의한 설교가 있었으며, 대략 다음과 같은 기도가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

에서 역사적안·약을 열었다 또 한가지 이와 같은 조직으로 1000 (國際基督敎會議)가 지난 3일 부터 미국 일라노비아에서 개최되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교회는 세계적 연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3대 회의에 한국에서도 대표가 참가하였다

現代基督教의 世界的 動向

—에큐메니칼 運動 發展의 經路—

教會 一致爲 한 四十年의 努力

主力은 IMC와 WCC의 一體協同으로

본로 제 1면에도 게재한 바와 같이 W 하는 에큐메니칼 (教會一致) 운동의 四十年에서 제 2회 세계 대회가 미국 에반스톤에서 열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강조하고, 그리스도 교회 안의 불일치를 조정 (調整) 함으로써 다 같이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중심이 되자

회의에서부터 그 구체적인 발전을 보게 된 것이다. 이제 이 운동의 전개된 계통을 들면 다음과 같다.

- 1. 세계 선교 운동
- 2. 신앙 직제 (職制) 운동
- 3. 생활 사업 운동
- 4. 세계 평화 운동
- 5. 세계 청년 운동
- 6. 각교파의 세계적 운동

一九三八년에 안도 마도라스에서 마도라스 선교 대회가 열렸다. 이와 같이 십년만에 한 차례 열리는 전례로 一九四七年에는 캐나다의 오티와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 IMC는 현재 세계 三十八개국의 NOO (기독교 회의회) 의가맹으로 구성되어 있다.

(二) 신앙 직제 운동은 스위스의 루트에서 제 3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三) 생활 사업 운동도 신앙 직제 운동과 병행하여 一九二〇년 제네바에서 예비회의, 一九二五年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되어 一九三〇년에는 생활 사업 세계 회의회 (生活事業世界會議會) 가 조직되었다. 그 다음 一九三七년에는 옥스퍼드회의, 一九三八년에는 에딘버러의 신앙 직제 회의와 혼동하여 인도 마도라스에서 열렸는데, 세계 선교대회와 정중하여 세계 교회 회의회를 설립할 공동연구 위원회가 설치되었

민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강국 (強國) 끼리의 반목과 후진 국가에 대한 착취를 시새워 하게 되었다. 여기에 있어서 인류 국가의 분열된 상태에 대하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새로운 한가지의 협동 정신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곧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체가 되어 그리스도교회의 근본 상태로 돌아가려는 세계교회 운동이 그것이다.

이 운동의 근원은 멀리 一九一〇년의 에딘버러에서 열렸던 세계 선교 운동

그러면 이 모든 운동의 모체라고 할 만한 세계 선교 운동의 발전 경로는 어떠한가? 이 운동은 一九二〇년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로써 그 첫 출발을 한 것이다. 그 후 계속 위원회의 지도로써 각국에 기독교 회의회의 조직이 성립되어 이 운동에 참가한 것이다.

그리하여 一九二一年에는 국제 선교 연맹 (IMC) 이 조직되었으며, 그 다음 一九二八年에는 예루살렘 선교 대회가 열렸으며, 또

주로 성공회 관계로써 추진되었는데, 一九一〇년에 그 첫 제안이 된 후 一九二〇년에 제네바에서 제 1회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그 후 一九二七年에 로잔 회의, 一九三七년에 에딘버러 회의가 열리어 점차적으로 교회 재일치 (再一致) 의 문제가 검토되었으며, 다시 一九五二년에

이리하여, 이상의 세계로 발한 운동이 협동하여 一九四七年에는 국제 문제 교회 위원회 (OOIA) 가 조직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이 OOIA의 사명은 오늘날의 국제 정세에 비추어 실로 중대한 것이 있다. 최근만 해도

인사의 말씀

前本紙主筆 田榮澤

불초 본인이 본사의 중직을 맡아가지고 본국에서 건넌오지 이미 삼년에 이제 이 자리를 떠나고 따라서 일본의 교회와 형제 자매를 떠나서 귀국하게 되며 감개한 생각을 금할 길 없습니다.

비록 몸이 건강치 못한 불면이 있고 하지마는 본지의 발전에 이바지 할 이렇듯 미약한 채, 재일

나만의 축복을 받아서 내

내 건강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앙을 가지고 교회 봉사와 교포 복음전도에 더욱 분투하시기를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진실로 오늘의 정세는 끝날이 온듯이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래길에 닦힌 형편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것이니 이제 깨여 정신차려 다같이 손을 잡고 신앙의 싸움에, 복음전선에 몸을 바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감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양관에서
八日까지
최로 모
의 자들의

이상은 주로 초교파적인
일 우리 교회인
도사는 「이론
서도 못
을 올리리

세계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주제와 討議 될 六副主題

세계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주제와 討議 될 六副主題

세계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주제와 討議 될 六副主題

기보한 바와 같이 제일대
한 기독교 면려청년회 전국
수양회는 예정대로 지난
七月二十八日로 동三十一
日까지 비파호의 사바에
(佐渡江)에서 개최되었는
데, 관동(關東)서 서남
(西南)까지의 먼 지역에
서 많은 회원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끝마쳤다 한다.

세계 운동은 말한 것인데
이에 병행하여 최근에 이
러서서 각교파의 세계적
조직 운동이 현저하게 테
두된 것이다. 이것은 예
수(反動的)경향으로 보
쉬우나, 사실인즉 한 교
안에서 각각 분파 분리되
어 가는 현상에서 예수
니칼 운동의 자극으로 감
은 계통의 교파가 세계적
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금의 세계 교회의 특징
이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회, 국제 그리스도회, 동
교회, 발티스트 세계 동
기독교회 세계 대회, 상
회, 콩그레스, 루터교 회
세계 대회, 개척파 교회
세계 동맹, 그 밖의 대
파가 각각 세계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러한
회의는 초교파적인 회의
아니고 한 교파 안에서
발선과 협동을 강조하며
세계 교회의 협의회(WO
는 조직 운동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지킴
의 의지나 지체
가 있는 것이나 되는
것이다. 이러한 큰 운동을
통하여 움직이고 있는 푸
로터스란트 교회 전체의
경향은 「예수 그리스도
주시라」하는 근본 신념에
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의 몸인 공동 교회(共同

특히 이 번에는 동 수양
회를 자주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전국 각 지방연합회
대표위원 七인이 운영면을
맡아 기획과 실천을 자주
적으로 한 것이며, 또 경
제면에 있어서는 금년에는
카나다 선교부에서 五만
원의 원조를 받았으나, 앞으
로는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CHRIST

THE HOPE

OF THE

WORLD

세계의希望이신 그리스도

主題와 討議 될 六副主題

「오슬날
의 세계
에는 공
포와 절
망이라는
그릇된
희망이
충만해
있다. 중
요한 분
파는 각
교회에

教會)가 되게 하려는 노
력인 것이다. (解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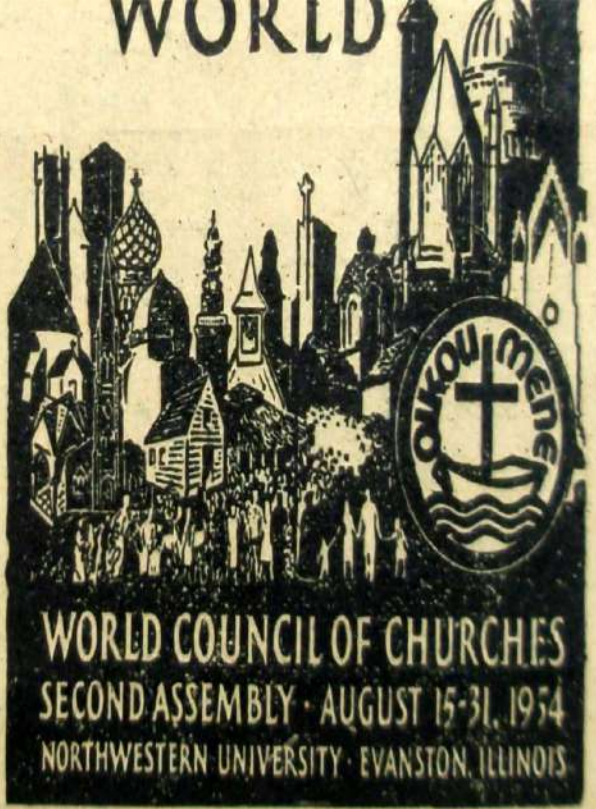
놀라운教會青年의熱意

今後自主運營目標

勉靑修養會盛況

가고 교회는 영적 능력과 승리의 희망을 명시하지 못한다. 적극적인 복음주의도 있으나 이교주의도 면만 하여 있다. 분리되어 가는 교회에 대하여 한편 공산주의적 복음, 과학적 유마니즘이나 다른 실존주의적 형태로써 분리를 방지하려는 교회 내부의 세속주의는 편한해 있다. 인간의 최대의 요구는 하나님의 최대의 기회이다. 그럼으로 이 주제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세계회의중앙위원회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토의를 부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신앙과 직제 그리스도



전번 사회

안에서의 우리의 일치와 교회로서의 우리의 분리 이 「신앙과 직제」의 문제는 一九五二년의 「신앙과 직제」에 관한 런던 회의에서 새로운 추진력을 얻은 것인데, 일치되는 교파와 분리된 교회 사이의 대립과 모순은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의 교회의 불일치의 의의를 구명할 것이

(2) 선교 교회 생활 이외의 동모예제의 교회의 전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에 대하여 유해한 요소를 구명하고 대중을 교회로 인도하여, 오늘날의 복음주의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동들을 전개할 것이 라 한다. 그리고 거년의 동수양회(六十七명)에 비하여 금년에는 一〇二명 (강사까지)이라는 다수의 회원이 힘써 참가한 것, 또二十五세 이하의 아주 젊은 회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그리고 향 레의 캄파이어에서의 회원들의 간증, 리크레이션으로 각 교회 단위의 극한창 등은 인상 깊은 것이었다 한다.

그리고 면청위원회에서는 금번의 수양회의 효과를 살리기 위하여 토론요지, 회원의 감상등을 프린트로 발행하리라 한다.

생의 지경을 넘어서 (三면八단에서 계속)

사람이 자기의 육체, 사업, 정신, 생의 한계를 넘기는 참 어렵다. 큰 신앙 높은 빛을 바라고 나아가라. 여러번 부흥회를 했으나 얼마나 올라갔는가 큰 배의 사공으로 五大양을 다 다녀도 그의 가는 곳은 술집 뿐이었다. 우리 몸통이 어디 있든지 문제가 아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평생에 자기의 고토를 넘어서 일 없이 없어도 세계를 뛰어 넘어 만세에 빛나게 되었으니 곧 그는, 신(神)과 자유와 영생의 세계를 발견한 것이다. 사상, 관념, 정신 이는

스스로 회의에서 이 문제는 중심과제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정치적 생활 사상의 동향에는 두가지 긴급한 문제가 있다. 첫째, 교회의 독립인데 사회의 교회에 대한 압박과 혼란에서 교회는 본질에 있어야 할 것이며, 둘째,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언제나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밀접히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기구가 필요한가를 토의할 것이다.

(4) 국제문제 세계공동체의 투쟁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

이 문제는 주로 지금의 양진영의 대립과 군비, 원수소한 문제, 또는 인권에 관한 문제등이 토의된다.

(5) 집단간 (集團間)의 관계 1 인종적, 민족적 긴장 가운데 있는 교회

이 문제는 백인 (白人) 또는 흑인의 인종적 문제에 대한 교회의 정책과 실행에 관한 토의이다.

(6) 평신도 (平信徒) -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평신도가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대한 교리를 잘 이해하고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 확신 있는 봉사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토의한다.

높은 데로 오를 수 있다. 현재의 천박한 시견을 넘어 더 나은 진리의 세계로 가라. 우리도 한 추장 아브라함과 같이 고토를 떠나 산 넘고 물을 건너 축복의 큰 나라의 조상이 되자. 큰 세상을 얻으라. 우리는 개인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생의 지경을 넘어 변화된 새 세계를 위해 준비하고 나아가자. (一九五四. 八. 一. 서울 정동 교회 아침 설교)

이 설교는 본지를 위하여 대한국세군 張公동정원의 속기한 것임 (문책 기자)

現代의 韓國 講壇

생의 지경을 넘어서

창세기 12:1-9

서울貞洞敎會牧師 張錫英博士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문제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생의 지경을 넘어서」에 대하여 생각하려 한다. 우리 인생 사는 지경, 경계를 넘는 것이다. 지금부터 약五千年 전 저 서면 아세아에 「생」족속이 있었다. 당시에는 그 종족은 장막을 매고 양을 돌고 생이 흐르고 물이 많은 곳을 따라 돌아다니며 목초를 구하였다. 소위 유목민이다. 그 유목민의 추장 아브라함이 자기 조장이 살던 우리 땅을 떠나 북으로 북으로 올라갔다. (마치 우리 피난민들이 남으로 남으로 내려온 것과 반대로) 북으로 북으로 가서 하란에 와서 감을 건너서 남으로 내려와서 세겜 땅에 왔다. 거기서는 동서남북으로 왔다갔다 한 것이었다. 이것이 그 유목민의 부랑생활에 대한 한 그림이다.

이것을 한국에서 된 일로 그리어 상상한다면 더 재미가 있을 것이다. 마치 공중에 나는 새가 옛보금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집을 찾듯이 사람도 자기의 살던 영역을 떠난 후 거기에 어떠한 새로운 기운이 생기는 것과 같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자라는 것을 보면 재미가 있다. 처음에 낱다. 곧 낱다. 방 안에서 배설물을 하다가 마루로 또 건너방으로 가버린다. 나중은 발을 뻗다. 중문턱을 넘는다. 그러나 대문턱을 넘기는 어렵다. 낱다가 넘어진다. 그러나 다시 시작한다. 그러다가 부모가 잠깐 안 볼 동안 간대 없다. 대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인간은 대문턱을 넘는 때가 인간이 생(生)을 찾는 첫 기회이다. 처음은 난관이나 차차 어렵지 않게 된다. 자꾸자꾸 나간다. 이 형제 인간이 자라고 자라면서 나중에는 자기 앞에 큰 물 높은 고개를 넘을 용기와 능력이 생긴다.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가다가 앞에 큰 산이 막혀 있을 때 그것을 피해 다른 데로 가고 강이 가로막힐 때 물러서 다른 데로 간다면 생의 길은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산을 넘고 강장대해(長江大海)를 돌아서지 말고 그것을 건널 것이다. 그러면 생의 길은 넓어진다. 사람이 대문턱을 넘는 것이 뜻 있게 보인다. 앞에 산이 있고 강이 가로 막히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일종의 생의 철학적 입장에서 생각하여 볼 때

(一) 생의 지경을 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여행 등산등의 경우에 경험하는 것과 같이 생의 지경을 넘는다고 하면 내가 지금 사는 지경을 벗어나 고산대해(高山大海)를 넘어가면 거기에 풍경이 다름이 있는 것이 첫째이다. 산 너머에 있는 세계와 같이 많은 새 풍경이 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 새 세계가 열린다. 시인 월즈워스는 「나는 하늘에 무지개를 볼 때 내 가슴이 뛰는 것을 본다」 하였다. 또 어떤 시인은 종말세 소리를 듣고 「너를 나는 아름답고 너의 노래를 듣는 골짜기는 광채가 나리라고」 하였다. 생의 지경을 넘을 때 우리에게 새 세계가 전개된다. 그 기상이 달라진다. 자세히 몇가지로 말하면 (1) 세계관이 다르다. 좀 큼직하게 생각하자. 천유(天有)의 보물로 알고 있던 자기의 생의 환경을 떠나 높은 산을 넘고 큰 강을 건너면 세계관이 달라진다. 있는 그곳에만 있을 때 공도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방 안에서 포악포악 생각할 때 세상 을 비관한다. 세상은 천도가 무심하다. 하계 무너지고 인심이 쇠되하니 양할 것 밖에 없다. 나는 피로 운 사람이라 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길을 돌이켜 산과 바다를 넘어 저편 세계를 보면 세계관이 달라진다. 우울심이 기쁘게 되고 비통한 것이 새 기운을 얻어 새 세계를 발견한다.

勉靑修養會에 참석하여

—反省과 今後의課題—

東京神學大學 朴勳舟

우리가 일년에 한번씩이나 이 수양회를 가지므로 일본 각처에 흩어져있는 교회의 남녀 청년들이 한곳에 모여서 성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검토하며 주 안에서 교제를 두루하게 하며 당면한 여러가지 사회문제에 관하여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면청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보아서 해마다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때까지의 그 걸음을 돌아보면 그 것은 자주성이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수양회가 비로소 면청의 순으로 자주적으로 운영방향을 세우고 일관하여 회를 인도하였다는 것은 크게 주목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자주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면청이 전하여 전승하게 된다. 생의 지경을 넘으면 가장 중대한 우리의 인생관이 바꾸어 진다. (2) 감이 문명인 가능성이 새로 발견된다. 세계관이 달라도 가능성이 없으면 일할 수 없다. 천하를 움직일 만한 힘과 재능을 가진 자라도 한 곳에 그대로 있으면 습관에 눌리고 욕심에 짓눌리고 경계에 포박되고 세력에 누를러 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문명인 줄이나서 한 편의 생의 울타리를 넘어 이르는 세계에서는 그 위대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생의 지경을 넘으면 속에 감추어져 있던 유용성이 발휘되어 그 전에는 모르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 (3) 생의 운명이 바꾸어 진다. 육체에 붙어 가소

하고 무가치한 자가 생의 탈자가 되어 생의 무사가 되어 생의 경계를 넘는 자로 변한다. 19세기 중엽에 이태리의 한 목동은 사회의 사다리 자꾸 기어오르면 중 나중에는 피로 十五세로 성자로서 충양 받는 정도 되었다. 나이에 관계없이 불관서의 미친한 여성이었으나 인간의 참 심정을 발휘할 때 「동화를 담은 영웅」으로 세계의 유명한 자가 된 것이다. 만년의 신탁(神曲)의 세가지 세계 지옥, 연옥, 나원은 인간의 생의 세가지 다른 운명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지옥 같은 운명도 나원의 자유로, 비참이 영화로, 욕망이 광명으로 바꾸어 진 것이다. 지옥 같은 운명을 나원으로 바꾸려면 자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유지의 원조와 협력을 바라 는 것이나 면청의 장래를 건전하게 위하여 일종의 경제적 선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위원은 대개 을 세워 모든 청년들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계몽하고 협력을 호소하여 경제 적자립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수양회에서 무엇보다도 성경공부를 많이 하 있는 데 내보기에는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한 거를 더 나아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길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성경해석론으로 발거를 옮기는 것이 순서 아닐까 생각한다. 성경공부에 있어 내가 해석하는 것은 어디까지라도 「하나님의 시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신 강사선생님의 성경에 대한 겸손한 태도와 청년들이 성경 한말씀 한말씀에 대하여는 보다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뜻을 찾고 있다고

(下)

김재준

(3) 그는 동물이나 식물간에 서로 싸우고 잡아먹고 하는 것만보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일부터 보지않은 모양입니다. 이로포토킨은 이전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스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4) 사람의 정신생활은 모두 물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근거」라는 말과 「원인」이란 말을 혼돈하였습니다. 정신의 「원인」이 물질에 있다는 말은 전연 근거 없는 억설입니다. 그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모든 문제의 제일 근본되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동물 이면서도 동물 이상이며 자연에 속하면서도 자연을 초월하며 자기 안에 있으며서 자기를 초월하는 영(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요 사람이 기계나 동물처럼 되어서 거기 놀려서는 안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조엄성을 다스

다. (2) 사람의 정신생활이 물질적인 근거를 요구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람의 모든 물질적 성취도 반드시 정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계획하고 고안하지 않고서 무슨 물질문명을 만들 수 있으며 무슨 기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신 생활은 앞세우지 않은 물질 건설을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소리는 없는 것입니다. (3) 그는 「파원」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싸움만 보

찾는 것이 현대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그 근본에서 바로 잡는 길입니다. (2)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예수는 자기를 죽여서 죄인들을 살리시려는 극진한 사랑의 구주입니다. 그러므로 부드러 부시고 없애 버린다는 것 보다는 사랑하고 도와서 다 같이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3) 폭력혁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일시적이어서 또 다시 뒤집어지는 것을 반복할 뿐이요 참 성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폭력보다도 변화시켜 새 사람 새나라 만드는 정

(우) 그리스도교는 자유하는
사랑으로 나라를 섬기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전 심신을 바쳐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
같이 하라」 계명으로 살
는 것이어서 그 안에서 자
기도 살고 남도 사는 구
원의 길을 찾으려는 것이
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영신

으로 자발적으로 희생
사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
으로 공산주의를 손
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용
한 우리 군인들이 전선
서 공산군과 싸와 그들의
침략을 막았다고 안심하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교회 그리스인들이 합심하
여 위대한 민주운동을
으켜 서로 사랑과 동정
친선으로 정신적 도덕적
는 모든 교육 산업 정
등에 참된 희생 봉사
기쁨을 나누며 일로 건
(최중) 자음은

八一五를 맞이하여
박 생

우리는 또 다시 八五를 맞이하게 되었다. 저 위대한 一九四五年 八月十五日의 날이 어김 없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동양의 약 소민족들을 받고 올라서서 세계를 지배하려면 일제의 어리석은 꿈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억압되었던 민족들이 해방의 자유를 얻게 된 이 하루의 날을 전기 패지에 있어서 가장 광우 있는 발걸음을 내어딛은 것은 우리 조선한국 민족이었다. 동방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한국민족은 제압자의 철쇄를 벗어나서 과거의 빛나는 역사를 다시 계승하기 위하여 우렁찬 자유 만세의 소리와 함께 해방이 된 것이었다.

로 아세아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八一五是 다만 일본의 패망이라는 것만에 그치지 않고 동아의 잠들었던 민족들은 깨어 한물을 날기 고는 각각 독립을 형성하였으며 또는 어떠한 자주 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

실로 이八一五의 날은 동아에 새로운 기원이 시작된 날이라 할 것이다.

이 위대한 역사의 첫

특히 우리가 찾는 귀한 자유는 신앙의 자유였다. 황민화, 내선일체의 정책 아래 기독교도는 신사 양으로 끌려 갔으며,五十여 명이란 교포자료를 낸 우리 교회는 참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었다.

해방을 받은 한국의 기교계는 갑자기 큰 활기를 띠고 방방곡곡이 교회와 신설이며, 설리의 은총을 감사하는 찬미 소리는

(제 49 시간)

張曉

치중(輜重) (치중)

다. 스스로 쓰이던 자음은
범한 것에 한하여 시지치
로 적을 것.

금실(琴瑟) (금합)

편집 (編輯) (편집)

법칙 (法則) (법칙)

다만 범하지 않은 것은
본음대로 적어야 합니다.

會世（習慣）

승리(勝利)

즉시(即時)

주인(主人)

杏林 (測量)

4. 옛날의 자음이 입천장소리
되어 현대의 표준음으로 된
것은 현대의 음으로만 적을
것.

7. 덕도뉘디데는

조주지제로

한자말(漢字語) - 3
첫째, 옛날의 음(音)에서 달
라진 자음(字音) - 2
2. ㅅ, ㅈ, ㅊ 을 첫소리로 삼
은 겹소리 ㅆ ㅅㅅ ㅈㅈ ㅊㅊ
현대의 발음에 따라 ㅅㅅ ㅈㅈ
ㅊㅊ로 고쳐 적을것.

샤셔쇼슈세워는

사서소수세워로

(부록)

(특리)

사회(社會)

(사회)

서론 (書類)

(序)

全同(少年)

(全国)

合村(水石)

(合 併)

四列(世累)

(附)

ㄴ. 자저쵸쥬제는

자저조주제로

장단 (長短)

(장단)

型主(輕重)

(정중)

